

##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김 금 미<sup>†</sup>  
성균관대학교

한 영 석  
중앙공무원교육원

여성이 자신의 낮은 지위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전략을 예견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이론의 틀에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을 부가하여 알아보았다. 여성 637명을 대상으로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변인에 해당하는 지위, 안정성, 합법성 변인들과 성별사회정체성 및 집단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정체성관리전략의 상관을 구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은 비교차원변경과 상관이 .278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 박탈감은 상위범주화와 .273, 비교차원변경과 .260, 집단행동과 .449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집단사회정체성 추구 전략을 설명하고 다음 단계로 성별사회정체성을 추가한 후, 상대적 박탈감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양은 상위범주화 2.8%, 비교차원변경 6.3%, 집단행동 16.1%였다. 또한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할 때 집단행동을 가장 덜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별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정체성이론, 상대적 박탈이론, 상위범주화, 비교차원변경, 집단행동, 지위,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

<sup>†</sup> 교신저자 :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Tel : 02-760-1280, E-mail : imttokki@hanmail.net

예전에 심야 TV 토론에서 군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토론을 벌인 남성 패널의 언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하여 오래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그 말에 공감하며 웃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들을 둔 어머니도 있고,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애인을 둔 아가씨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남성’의 입장에 더 동감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의 ‘편’으로서 성의식에 있어서 성차보다 세대차가 큰 조사결과들이 종종 나온다.

‘군가산점 제도’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50% 공천제도’, ‘국공립대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 등 각종 성별 관련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여성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한 시각과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를 탄생케 하는 산고를 겪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다른 여성들은 자신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장’으로, ‘법관’으로, ‘교수’로, ‘선생님’으로 정체화하면서 여성문제에서 비껴가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성과 심리적인 성이 구분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성별이 돌출되는 이슈를 대할 때 정체성 정도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들은 거리에 나가서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을 외치고, 어떤 여성들은 ‘우리는 남자들보다 이런 면에서 더 나아’라는 생각에 안주하며, 어떤 여성들은 남성의 입장에 동조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평등 행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여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여성

들의 양성평등 행동 실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동전략들을 살펴보고 그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지위, 안정성, 합법성과 같은 선행 사회구조 요인들로부터 집단행동전략이 선택되는 데에 성별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기여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거나, 권력, 사회적 명성, 및 물질적 이익을 더 많이 얻어서 현재 자신의 지위나 상황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대적 박탈이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생각을 일관되게 지지한다(Ellemers, 1993). 또한 성별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을 집단간 관계에 적용하여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 이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이론에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을 추가하여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여성의 집단 사회정체성 추구 전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 추구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 사회정체성이론과 선행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나은 쪽으로 차별화 하려고 한다. 자기 평가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자신이 속해 있거나 동일시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가 낮다면 ‘부적 사

회정체성'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러한 부적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고, 자신의 지위를 더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본다.

정리하면,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주장한다. (1)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회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고 (2) 이에 근거하여 그 집단의 특성들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유된다고 생각하며 (3) 이 특징들은 다른 집단의 특징들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비교된다(Ellemers, 1993).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자기 개념의 일부로서 획득하려는 욕망을 지닌다는 주장이다(한덕웅, 1995).

이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여 자기 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정적인 정체성을 지니지만, 지위가 낮을 때에는 부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부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정적 정체성을 지니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이 때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행동을 보일 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선행 변인들을 주장하였다. 선행변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전략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전략의 사용 정도도 차이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금미 · 한덕웅(200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 253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에 따라서 경쟁행동이나 비교의식을 설명하는 정도가 달랐다. 특히 여성범주동일시 요인은 집단 경쟁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여성이라는 범주에 자신을 더 동일시할수록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남성들에게 항의

하는 등의 집단 경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렇게 사회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전략 사용이 달라지므로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체성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집단 소속과 집단간 관계를 집합적으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을 예견하려 하였다(Taylor & Moghaddam, 1987, 59쪽). 대표적으로 Ellermers(1993)는 정적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선행변인들로서 집단의 지위, 안정성, 합법성, 집단경계의 침투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집단의 지위는 소속 집단의 성원이 지각하는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에 해당한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인 지위가 낮고 지각한다(김금미 · 한덕웅, 2001).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이 낮은 지위를 지닐 때 관련된 외집단과의 비교에서 더 못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사회적 정체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정체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행동전략의 변화에는 집단의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집단간 관계의 안정적인 정도도 이후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집단간 관계는 현재와는 다른 집단 간 지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반해, 불안정한 집단간 관계는 다른 지위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Ellemers, 1993). Mummendey, Mielke, Wenzel, 및 Kanning(1996)의 연구에서는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면 집단전략이 불필요하리라고 보았지만, Ellermers(1993)는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고 비합법적일 때 집단 간 갈등이 가장 클 것

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전략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전략의 인지/행동적인 특성에 따라 안정성의 영향이 다르리라고 예상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성은 현재의 지위관계가 정당하게 느껴지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현재의 지위 관계가 합법적이라는 데 동의하면 고지위 집단과 저지위 집단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으리라고 제안한다(Ellemers, 1993). 열등한 집단은 지위차이가 합법적일 때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특성을 추구하려하지 않지만, 집단간 지위 차이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유사하지 않은 집단조차도 집단간 비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법성과 안정성이 상호작용하여 불안정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집단간 관계가 집단간 갈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Ellemers, 1993). 이에 따르면 현재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객관적 수치나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남성의 지위에 관하여 불안정하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느껴서 성별 갈등이 커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사람들은 내집단 성원을 편애하고 외집단 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비교를 통해서 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때 이미 낮은 지위에 처해 있는 상황처럼 사회정체성이 부정적이면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사회적 경쟁(social competition), 사회적 창조(social creativity) 전략을 사용한다(Hogg & Abrams, 1990). Jackson, Sullivan, Harnish, 및 Hodge(1996)도 정적 사회정체성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이동과 사회적 창조 전략, 그리고 두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집단과 직접 경쟁하는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Tajfel(Tajfel, 1978, 93~94쪽; Ellemers, 1993)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들로 첫째, '사회적 경쟁'은 내집단이 우월한 집단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다. 둘째, 현재 집단의 열등한 특성을 재해석하여 열등하지 않게 보는 전략이 있다. 셋째, 사회적 행동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분화를 통해 가치 있고 독특하고 우월하면서도 새로운 집단 특성을 창조한다. 넷째, 내집단이 비교되는 외집단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 긍정적 독특성을 추구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네 번째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사회적 창조' 측면의 전략들이다. 이 전략들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신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Ellemers(1993)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합법적이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려는 사회적 이동을 피할 것이지만, 비합법적이거나 불안정하면 집단적으로 도전하는 사회적 경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았다.

Blanz, Mummendey, Mieke, 및 Klink(1998)는 사회정체성이론으로부터 나온 10개의 정체성 관리 전략들에 사회비교이론으로부터의 2개의 전략을 추가하여 12개의 전략을 선정하고 정체성 관리 전략의 이론적 체계를 제안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개인/집합적 전략과 행동/인지적 전략에 따라 두 개의 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개인/행동전략으로서 개인적 이동(individual mobility) 전략은 낮은 지위 집단 성

표 1. 부적 사회정체성에 따른 정체성관리 전략의 2×2 분류(Blanz. et al., 1998 인용)

		변화의 표적	
		개인	집단
행 동	개인적 이동	사회적 경쟁	
	동화(Hogg & Abrams, 1988)	실체적 경쟁	동화(Tajfel, 1978)
반 응 양 식	인 지	개인화	비교차원의 재평가
			새로운 비교 차원
			상위 재범주화
			하위재범주화
		새로운 비교집단	
		시간적 비교	
		기준과의 비교	

원이 개인적으로 외집단에 소속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동화(assimilation)는 낮은 지위 집단이 높은 지위 외집단에 더 유사해지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전체 내집단이 없어지는 않으므로 개인적 반응으로 보는 견해(Hogg & Abrams, 1990)가 있는 한편, Tajfel(Tajfel; Blanz 등, 1998에서 재인용)은 이를 내집단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보아 집합적 반응으로 간주했다. 개인/인지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이다. 이 전략은 자신을 더 이상 부적 정체성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 평가에서 영향받지 않는 독특한 개인으로 개인 범주화하는 전략이다.

집합/행동전략 가운데 사회적 경쟁은 자기 평가의 동기에 의해서 내집단을 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비교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전략이고, 실제적 경쟁은 자기 이해와 집단 목표가 외집단과 갈등을 일으킬 때 내집

단에 이롭도록 자원을 할당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전략은 Tajfel(Tajfel, 1978, 93~94쪽; Ellemers, 1993에서 재인용)이 사회적 창조 전략으로 구분한 전략들과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는 두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비교차원의 재평가, 새로운 비교 차원의 창출, 상위재범주화 전략, 하위재범주화 전략, 비교 대상의 변화 전략, 시간적 비교전략 및 기준과의 비교 전략이다. 비교차원의 재평가는 비교차원의 정적인 극단을 가치 절하하는 방향으로 재평가하는 전략이다. 새로운 비교차원의 창출은 이전의 부적 결과를 가져오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관련 외집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지니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섬세함, 배려적임’ 등의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두 전략은 비교차원 선호의 변화를 의미한다. 비교주체가 변화하는 전략으로는 상위재범주화 전략과 하위재범주화 전략이 있다. 상위재범주화 전략은 별개의 두 집단을 새로운 공통의 상위 내집단으로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재범주화 전략은 이전의 내집단을 둘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분화하여 새롭게 설정된 내외집단 관계에서 지위를 더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위재범주화하거나, 여성을 학벌에 따라 나누어서 더 높은 학벌 집단에 속한 성원이 여성 집단 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하위재범주화 전략이 있다.

한편 새로운 비교 집단을 외집단으로 선택하는 비교 대상의 변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른 시점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정적 비교 결과를 얻는 시간적 비교전략과 다른

집단에 비교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목표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과 내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정적 평가를 얻고자 하는 기준과의 비교전략은 사회비교이론으로부터 추가된 개념이다.

이러한 두 축(개인/집합적 전략과 행동/인지적 전략)을 기준으로 네 차원에 위치되는 12개의 전략을 요인분석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2 (행동 / 인지) × 3 (내외집단 무변화 / 내집단 무변화 · 외집단 변화 / 내외집단 변화)의 행렬에 위치한다고 해석하였다. 내외집단이 둘 다 변하지 않는 행동전략에는 지위 관계가 변화하는 사회적 경쟁과 실제적 경쟁이 해당되고, 내외집단이 둘 다 변하지 않는 인지전략에는 비교차원의 재평가와 새로운 비교차원의 도입이 해당된다. 또 내집단이 변하지 않지만 외집단이 변화하는 인지 전략은 새로운 비교차원의 창출, 시간적 비교, 기준과의 비교가 해당된다. 또한 내집단과 외집단이 모두 변하는 행동 전략은 집단 멤버십이 변하는 개인적 이동과 동화가, 이러한 인지 전략은 범주가 변하는 개인화, 상위재범주화, 하위재범주화가 해당된다(Blanz et al., 1998)

부적 정체성을 지니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알아본 연구들을 보면, 침투가능성(permeability; ‘개인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특출성에 따라서 상황도피(exit), 상황 수용, 재검사 요구, 집단적 항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다(Lalonde & Silverman, 1994). Jackson 등(1996)의 연구에서는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에 따라서 부적으로 독특한 내집단에서 개인적 전략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이동과 집합적 전략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창조전략이 사용되는 현상을 검증하였다. 이들 연구들의 결

과를 보면, 침투가능성이 낮을 때 사회적 창조전략이나 집단적 항의와 같은 집합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llemers, Spears, 및 Doosje(1997)의 연구에서도 집단 몰입과 개인적 이동의 심리적 결정 요인으로써 내집단범주화 요인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성별 집단의 지위, 합법성, 안정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전략을 알아본 바 있다. 여대생 3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금미 · 한영석, 2002) 결과를 보면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들은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들 가운데 집단몰입에 부적 영향 미치고,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이 높았으며, 양성평등신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수준도 높았다. 종합적인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공변량구조 분석의 결과에서 합법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최종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대부분 양호했다. 이 결과는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에도 집단몰입이 양성평등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남자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금미 · 한덕용 · 한영석, 2003)에서는 성별 집단의 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의 사회구조 변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으로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낮았으며,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남녀평등 의도/행동 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실제로 사회정체성이 낮을 때에 비해서 사회정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적 사회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 경쟁전략을 더 사용할 것이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일관되게 높게 기여하는 부분은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합법성의

영향이있다. 남성은 현재의 성별 집단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이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별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이 낮아지는데,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신념이 높아지고 양성평등행동도 높아졌다. 여성의 현재 지위에 대한 합법성은 양성평등 신념과 행동에 직접 경로를 통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집단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합/행동전략과 집합/인지전략을 중심으로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고, 합법성을 비롯한 선행요인들에 따른 전략 수행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정체성관리전략의 구조와 발생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상대적 박탈감

사회정체성이론은 성별 관계뿐만 아니라 정체성 지각 정도에 따른 내집단 편애나 상대적 박탈 등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지역간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즉, 영·호남인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박군석·한덕웅, 2002)에 따르면, 지위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을수록, 합법성이 낮을수록,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은 집단상대적 박탈감을 설명하거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위, 안정성, 합법성의 영향력에 추가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

간 갈등 및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별도로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양성평등 행동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Davis(1959)는 집단 성원들 가운데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초래되는 마음 상태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정의하였다(Davis, 1959, 한덕웅, 2002 재인용). 상대적 박탈감을 주제로 하여 주로 상대적 박탈감의 선행요인, 결과, 및 종류 등에 관하여 연구되었는데(Bernstein & Crosby, 1980, Crosby, Muehrer, & Loewenstein, 1986; Folger, 1986, 1987; Gurr, 1970, 한덕웅, 2002 재인용; Runciman, 1966, 한덕웅, 2002 재인용), 특히 상대적 박탈이론의 선행 요인으로 거론된 변인들을 종합해보면, 결과의 사회비교, 자격부여, 바람(want), 과거의 결과 가능성, 미래 실현가능성, 자기책임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상대적 박탈감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Runciman, 1966; 한덕웅, 2002 재인용). 이 가운데 이기적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개인적 입장과 관련하여 느끼게 되는 불만감이고 집단내 타인과 관계가 있다. 반면 집단우애적 박탈감은 자신의 내집단 지위를 관련된 외집단과 비교할 때 나타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집단적으로 박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집단우애적 박탈감은 거시적인 사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흑인 후보가 출마하는 도시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와 선거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Vanneman &

Pettigrew, 1972), 인종에 대한 집단우애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백인들은 개인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백인들보다 흑인시장을 덜 지지하거나 투표하지 않았다. 또한 흑인들에게서 측정된 집단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적 박탈감보다 행동을 예견하는데 더 효과적이었고 좌절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Abeles, 1976).

한편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의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박군석·한덕웅(2002)은 감정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인지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보다 태도나 행동 등을 더 잘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아공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집단의 행동 경향성을 측정한 결과, 감정적 박탈이 항의 의도의 33%를, 인지적 박탈이 2.3%를 설명했다(Rey & Raju, 1996). 이 결과는 감정적 박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비교와 관련된 인지요소들이 감정요소들과 독립적임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박군석·한덕웅(2002)은 실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은 행동의도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여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된 각 요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요인이 사회정체성이론 틀에 추가되었을 때 집단의 전략을 더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전략 유형에 따라 인지적 박탈, 감정적 박탈과 행동의도적 박탈이 각 전략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상대적 박탈감 요인의 추가

Tajfel(Tajfel, 1982)은 집단의 사회정체성이 상대적 박탈 경험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집단간 관계에서 상대적 박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합법성, 안정성, 지위의 세 가지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의 영향을 가정한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어떤 집단의 사회 지위, 현재 지위의 안정성, 그리고 이 지위가 획득된 기반의 합법성 수준과 아울러 집단의 성원이 소속한 내집단에 대해서 지니는 사회정체성이 상대적 박탈감 경험을 결정한다고 보았다(한덕웅, 2002).

Mummendey 등(1999)은 동독인 517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동서독인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심리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준거결과, 안정성(개선가능성), 합법성(도구성), 및 침투가능성을 선행변인으로 하고, 정체성, 집단효능성, 집단우애적 분개를 매개변인으로 삼았다. 최종 종속변인으로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전략은 이동, 재범주화, 사회적 비교, 실제적 비교, 시간상의 비교, 재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경로들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설정되었는데, 개인적 이동, 상향재범주화, 사회적 비교, 실제적 비교로 향하는 집단우애적 분개의 직접경로와, 정체성, 집단효능감, 준거결과, 안정성, 합법성, 침투가능성의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를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재범주화, 사회적 비교와 실제적 비교에서는 대체로 유의하였고, 개인적 이동에서도 전체 12개의 가능한 경로 가운데 6개의 경로가 유의하거나 유의한 경향성을 보여서 대체로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고, 시간상의 비교와 재평가에서는 2~4개 정도의 경로만 유의했다. 한편 한덕웅(2003)도 한국사회에서 지역 및 성별 집단간 관계를 연구하는 개념의 틀로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대적 박탈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제안하

였다.

Mummendey 등(1999)과 한덕웅(2003)의 두 가지 이론 틀의 공통점은, 선행 요인으로 합법성, 안정성, 침투가능성을 두어 선행 사회구조 요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최종 종속 측정치로 크게 개인전략과 집단전략 및 인지전략과 행동전략을 고려한 점에서 이론적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성별관계에서 이러한 모형이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에 기초를 두고 집단경쟁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의 독립적인 설명량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성별관계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침투가능성 변인은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여성의 남성에게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요인들을 확인한다. 둘째, 한국 여성의 정체성 관리 전략의 요인들을 확인한다. 셋째, 집단상대적 박탈감과 집단정체성 관리 전략에 미치는 선행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을 각각 탐색한다. 넷째, 선행 사회구조 요인으로 사회 지위, 합법성, 안정성을, 그리고 사회정체성, 집단상대적 박탈감을 주된 변인으로 하여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각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체성에 부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안정성과 합법성 요인에 따라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수행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요인의 설명 강도를 살펴보고 상대적 박탈감의 추가로 인한 이득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의 연구를 통하여 선행 연구들(김금미 등, 2003; 김금미, 한영석, 2002)이 사

회정체성이론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 신념 및 행동을 알아본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먼저, 정체성 관리 전략을 세분함으로써 다양한 행동 전략의 실천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성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성별사회정체성과 관련지어봄으로써 두 요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여 많이 다룬 사회정체성이론의 틀에 상대적 박탈감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행동과 관련한 변인들의 설명량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때 김금미와 한영석의 연구(2002)에서는 저지위에 속하는 여성 대상만을 다루기에 지위 변인을 빼고 합법성과 안정성만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변인을 추가하면서 지위가 상대적 박탈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어 지위 변인을 다루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의 일요인성 및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공통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정체성이론의 틀에서 집단 상대적 박탈감이 전략 사용의 설명에서 기여하는 바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 조사 대상

서울과 지방을 고루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여자 대학생 자신과 그 친지들, 그리고 평생교육원 강좌나 보육교사 강의를 듣는 여성들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범위는 17세~58세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었고 평균연령은 23.16세( $SD=6.59$ )였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345명(60.3%), 기혼이 227명(39.7%)으로 미혼 : 기혼이 약 6 : 4의 비율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41명(55.9%), 경기 83명(13.6%), 강원 21명(3.4%), 충청 29명(4.7%), 전라 44명(7.2%), 경상 81명(13.3%), 기타 11명(1.7%)였다.

## 조사 도구

### 지위

지위와 관련한 6개 문항을 제작할 때 지위는 평가의 비교 차원에서 집단의 상대적 위치(Tajfel & Turner, 1986, 19쪽)라는 정의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Jones, 1972, 117쪽; Sachdev & Bourhis, 1987에서 재인용)라는 정의를 반영하고 Mummendey 등(1996)이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도 참조했다. 문항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쁘다’ 등이다. 집단 지위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통요인분석을 하였고 내적 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신뢰도계수는 .72였으며,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로 고유치는 1.83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위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지위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지위를 높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지위의 평균은 7점 척도에서 1.61( $SD=0.72$ )이었고, 점수가 척도의 중간값인 4점보다 매우 낮아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들의 지위가 매우 낮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 합법성

합법성은 집단의 현재 지위에 대한 정당성 지각(Ellemers, 1993)으로 정의하였다. 문항은 ‘가정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 9문항이었다. 집단 지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78이었고,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은 한 개(고유치 2.57)였으므로, 집단 지위의 합법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비합법성을 나타내는 네 문항을 역전하였고 합법성의 평균은 7점 척도에서 2.51( $SD=0.98$ )로 여성은 현재 지위가 매우 비합법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 안정성

안정성은 집단간 지위관계에서 현재와 다른 지위구조가 고려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하였다(Ellemers, 1993). 문항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지위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등 8문항이었다. 집단 지위 안정성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5였고,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고유치 3.49)였으며,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점 척도에서 평균 2.79( $SD=0.86$ )였고,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세 문항을 역전하였으므로 평균을 볼 때 안정성이 낮아서 지위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함이 반영되었다.

### 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금미·한덕웅(2001)에서 사용되었던 41개의 예비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86%를 설명하였고 선행연구(김금미 · 한영석, 2002; 김금미 · 한덕웅 · 한영석, 2003)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었다.

집단몰입 요인은 전체적인 성별사회정체성의 방향과 일관되도록 문항의 방향을 역전하였다. 그 평균은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가운데 5.79( $SD=0.94$ )로 여성이 자신이 여성이라는데 대하여 싫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가치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91,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집단자존심 요인의 평균은 4.26( $SD=1.10$ )으로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이 7점 척도의 중간값인 4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그쳤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91,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집단범주화 요인의 평균은 4.07( $SD=0.97$ )로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은 정도, 외집단 성원들에 비하여 내집단 성원들을 쉽게 믿음, 남성집단에 대한 애착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정도가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4.71( $SD=0.67$ )로 척도의 중간값인 4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고유치는 1.74,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 집단상대적 박탈감

선행연구들과 박군석 · 한덕웅(2002)의 상대적 박탈감 문항들을 성별 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7점 척도에 반응하게 하였다.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 방법은 성별사회정체성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각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는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결과에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부적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가운데 남녀 간의 경쟁에 초점을 둔 김금미 · 한덕웅(2001)의 문항과, 지역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박군석 · 한덕웅(2002)의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여성들이 남성과 여성 관계에서 자신의 사회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생각되는 전략들을 대체로 포함시켰다. 문항들에 대하여 7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고,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 방법은 성별사회정체성의 분석과 동일하며, 요인분석 결과는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결과에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AS 8.01을 사용하였

다. 먼저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요인분석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각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 집단 상대적 박탈감은 박근석·한덕웅(2002)에 일관되게 인지박탈, 감정박탈, 행동의도박탈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이 선정되었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2.5%를 설명하였다. 성별 관계에 관하여 감정적 박탈의 평균은 4.53 ( $SD=1.14$ ), 행동의도 박탈의 평균은 4.93 ( $SD=0.82$ ) 이었고, 인지적 박탈의 평균은 5.32 ( $SD=0.75$ ), 집단 상대적 박탈감 전체의 평균은 4.93( $SD=0.69$ )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집단상대적 박탈감은 7점 척도에서 5점에 가까워서 비교적 높았고, 그 가운데 인지적 박탈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감정적 박탈도 거의 5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데 대해 인지적 의식이 가장 높고, 분노나 불만 등의 정서적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든 박탈 점수가 척도의 중간 값보다 높아서 여성의 상대적 박탈 지각 정도가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요인분석

사회정체성의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

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00%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 1요인은 여성의 부당한 대우를 남성들에게 주장한 적이 있거나 지위에 관하여 따지거나 관련한 글을 읽는 것 등으로 이를 집단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평균은 7점 척도 가운데 4.19( $SD=1.17$ )로 척도의 중간값인 4점(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제 2요인은 여성과 남성의 비교 차원 가운데 여성이 더 우월한 방향으로 비교하는 전략으로 7점 척도 가운데 4.71( $SD=0.86$ )로 중간값인 4점(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제 3요인은 낮은 지위에 해당하는 여성 집단보다는 인간이거나 같은 나라의 국민과 같이 더 큰 범주로 정체화하는 전략으로 이를 상위범주화라고 지칭하였다. 이 요인의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57( $SD=1.10$ )로 중간값인 4점(보통)보다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전략들은 Blanz 등(1998)이나 Mummendey 등(1996)의 전략 구분과 일관된다.

###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먼저 사회구조 요인들과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집단상대적 박탈감 개념의 도입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표 2. 집단상대적 박탈감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 개념 및 문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 문항 제거시 α계수	요인 부하량	공 통 분
<b>감정</b>				
분노한다	0.854	0.950	0.885	0.783
분개한다	0.871	0.949	0.901	0.812
화가 난다	0.867	0.949	0.894	0.800
분통이 터진다	0.862	0.950	0.895	0.802
불만스럽다	0.785	0.953	0.807	0.652
불행하다	0.692	0.958	0.705	0.497
불쾌하다	0.834	0.951	0.852	0.727
억울하다	0.785	0.954	0.798	0.636
분하다	0.867	0.949	0.885	0.783
	<b>고유치</b>	<b>6.50</b>	<b>α계수</b>	<b>.957</b>
<b>행동 의도</b>				
여성들은 여성들의 현재 지위가 남성만큼 나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0.303	0.903	0.394	0.160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0.440	0.900	0.569	0.327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0.430	0.900	0.579	0.355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남성이 있으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려고 한다	0.361	0.902	0.648	0.424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대접을 못 받게 된 원인을 알게 되면 개선할 의사가 있다	0.333	0.902	0.459	0.229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남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0.508	0.899	0.758	0.587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당한 처지임을 알리면서 항의하려고 한다	0.430	0.900	0.683	0.491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시정을 요구하려고 한다	0.418	0.901	0.784	0.654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개선하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0.403	0.901	0.774	0.637
	<b>고유치</b>	<b>3.841</b>	<b>α계수</b>	<b>.850</b>
<b>인지</b>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0.627	0.805	0.704	0.496
나는 남성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 한다	0.659	0.801	0.732	0.536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0.638	0.803	0.704	0.496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0.609	0.808	0.672	0.452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일한 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	0.529	0.817	0.585	0.342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대 받는다	0.531	0.817	0.580	0.337
현재 여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남녀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0.554	0.814	0.597	0.356
가정에서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남성 가족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형편없다	0.402	0.841	0.436	0.190
	<b>고유치</b>	<b>3.209</b>	<b>α계수</b>	<b>.833</b>

표 3.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 개념 및 문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 문항 제거시 $\alpha$ 계수	요인 부하량	공 통 분 분
<b>집단행동</b>				
여성들이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남성들에게 주장한 적이 있다	0.700	0.869	0.757	0.575
나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도록 여성들이 함께 남성들에게 주장한 적이 있다	0.683	0.870	0.751	0.546
나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차별을 잊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0.709	0.869	0.721	0.577
나는 남성들에게 현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부당함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따진 적이 있다	0.670	0.871	0.715	0.524
나는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관련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0.602	0.876	0.661	0.416
나는 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관심 있게 읽은 적이 있다	0.612	0.875	0.640	0.438
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앞서도록 동성친구들을 격려한 적이 있다	0.560	0.879	0.592	0.362
나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우수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0.560	0.880	0.581	0.361
동료들 사이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0.560	0.878	0.578	0.347
나는 기업에서 동일한 경력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0.566	0.878	0.576	0.350
	<b>고유치</b>	<b>4.441</b>	<b><math>\alpha</math>계수</b>	<b>.885</b>
<b>비교차원변경</b>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감수성이 높다	0.588	0.689	0.737	0.545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0.609	0.681	0.723	0.535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인정이 있다	0.509	0.719	0.579	0.366
창의적인 일이라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다	0.534	0.710	0.576	0.366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성실하다	0.382	0.759	0.540	0.300
	<b>고유치</b>	<b>2.276</b>	<b><math>\alpha</math>계수</b>	<b>0.757</b>
<b>상위범주화</b>				
따지고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인간이므로 비슷하다	0.595	0.458	0.712	0.518
나는 자신이 여성이기보다 한 인간이라고 생각 한다	0.505	0.578	0.640	0.426
같은 인간끼리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0.399	0.713	0.494	0.266
	<b>고유치</b>	<b>1.308</b>	<b><math>\alpha</math>계수</b>	<b>0.682</b>

표 4.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단순상관

구분	성별사회 정체성	집단상대적 박탈감			
		인지박탈	감정박탈	행동의도박탈	전체
지위	-.048	-.448***	-.319***	-.106**	-.451***
합법성	-.079*	-.344***	-.345***	-.201***	-.399***
안정성	-.162***	.021	-.001	-.162***	.002
성별사회정체성		.082*	.005	.143***	.07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상대적 박탈감의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각각의 단순 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지위, 지위의 합법성 및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합법성과 안정성이 낮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또한 집단상대적 박탈감 전체로 보면 지위가 낮을수록, 합법성이 낮을수록 집단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지위의 합법성이 낮

다고 지각할수록 세 가지 박탈이 각각 높아졌으나, 안정성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박탈만 유의하게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집단상대적 박탈감과 성별사회정체성은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Tajfel (Tajfel, 1982)의 주장 및 박근혜 · 한덕웅(200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다음으로 사회구조 요인들,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집단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표 5.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집단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단순상관

구분	집단정체성추구전략		
	상위범주화	비교차원변경	집단행동
지위	-.134***	.055	-.155***
합법성	-.300***	.019	-.189***
안정성	-.156***	.043	-.073 <sup>†</sup>
성별사회정체성	.098*	.278***	.095**
감정박탈	.191***	.143***	.390***
인지박탈	.269***	.289***	.383***
행동박탈	.262***	.266***	.288***
집단 상대적박탈감 전체	.273***	.260***	.449***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현재 지위관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상위범주화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Ellemers(Ellemers, 1993)의 주장과 일관된다.

선형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이론, 상대적 박탈감 및 전략과의 관계

사회구조 요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 집단상대적 박탈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사회구조 변인들(지위, 안정성, 합법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동시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를 볼 때 모든 준거변인에서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들의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1미만으로 나타나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동시 중다회귀 분석 결과에서, 성별사회정체성에서는 안정성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데 그쳤다. 사회구조 요인은 성별사회정체성을 3.0%만 설명하였다.

집단상대적 박탈감 전체로 볼 때 지위가 부적으로, 합법성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량은 27.9%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상대적 박탈의 강력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집단상대적 박탈감을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지위가 낮을수록, 합법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박탈이 높아졌고, 지위가 낮을수록, 합법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을수록 감정적 박탈이 높아졌으며, 지위가 낮을수록, 합법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낮을수록 행동의도 박탈이 높아졌다. 종합해 보면, 지위가 낮을수록 세 가지 요인의 박탈이 모두 높아지고, 합법성도 낮을수록 세 가지 요인의 박탈이 높아지며, 안정성의 경우는 단순상관 결과와 일치되게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았다. 즉 지위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행동을 실행해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행동의도 박탈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Ellemers(1993)의 주장과 같이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고 비합법적일 때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이 달라지는지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즉 성별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각각에 대한 합법성과 안정성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정체성

표 6. 성별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동시회귀분석 결과)

구분	성별사회 정체성	집단상대적 박탈감			전체
		인지박탈	감정박탈	행동의도박탈	
지위	-.063	-.351***	-.209***	-.073 <sup>†</sup>	-.337***
합법성	-.001	-.246***	-.302***	-.135**	-.314***
안정성	-.168***	.073*	.008*	-.124**	.088*
R <sup>2</sup>	.030***	.247***	.170***	.055***	.279***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한 합법성과 안정성의 영향

구분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상위범주화	비교차원	집단행동	
1	합법성	-.280***	-.038	-.185***
	안정성	-.062	.005	-.012***
	$R^2$	.094***	.004	.035***
2	합법성*안정성	.283 <sup>†</sup>	.328 <sup>†</sup>	.362*
	$R^2$	.098***	.008	.042***
	$\Delta R^2$	.004	.004	.007*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관리 전략 각각에 대하여 합법성과 안정성을 일차로 포함시키고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행동( $\Delta R^2 = .007, p < .05$ )에서만 상호작용 항의 추가에 따른 설명량의 증가가 유의하

였다. 유의한 상호작용 항에 따른 각 조건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안정성이 높고 합법성이 높은 조건에서 집단행동이 가장 낮았고(평균 3.90), Ellermes(1993)의 예견과 같이 안정성이 낮고 합법성이 낮은 조건에서 집단행동이 가장 높았다(평균 4.39).

표 8.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한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구분	사회정체성추구전략			
	상위범주화( $\beta$ )	비교차원( $\beta$ )	집단행동( $\beta$ )	
1	지위	-.054	-.044	-.112*
	합법성	-.257***	-.020	-.138***
	안정성	-.075+	-.045	-.008
	$R^2$	.096***	.005	.050***
2	성별사회정체성	.066+	.292***	.075+
	$R^2$	.101***	.088***	.052***
	$\Delta R^2$	.005	.083***	.002
3	상대적 박탈감	.198***	.298***	.474***
	$R^2$	.129***	.151***	.213***
	$\Delta R^2$	.028***	.063***	.161***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서 사회구조 요인에 추가해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추가 설명변량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설명변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분석 결과에서 모든 준거변인에서 지위, 안정성, 합법성, 사회정체성, 상대적 박탈감의 사회구조 요인들은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1미만으로 나타나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사회정체성은 모든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해 사회구조 요인에 더해서 추가설명변량이 크지 않았다. 즉, 비교차원변경( $\Delta R^2=.083$ ,  $p<.001$ )에서만 설명량이 증가되었다.

성별사회정체성이 추가된 후,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추가설명량은 모든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즉 상위범주화( $\Delta R^2=.028$ ,  $p<.001$ ), 비교차원변경( $\Delta R^2=.063$ ,  $p<.001$ ), 집단행동( $\Delta R^2=.161$ ,  $p<.001$ )에서 설명량의 증가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상위범주화, 비교차원변경 및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설명하는데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선행 사회구조 요인의 유의한 영향력에 이어, 성별사회정체성의 영향 그리고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추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있어서 성별사회정체성보다 비교적 강한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성의 양성평등행동을 사회정체

성 관리 전략으로 보고 다양한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성별 관계에서 부적 사회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심적/행동적 과정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상위범주화, 비교차원, 집단행동의 집단 인지/행동 반응이 일어나는 선행조건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할 때 집단전략 사용에 관하여 Ellemers(1993)와 Mummendeey 등(1999)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이러한 주장의 검증에도 주목하였다.

한편, 성별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을 관리하는 전략을 설명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보고, 먼저 성별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요인분석 하였다. 이어서 각 전략을 더 많이 설명하는 상대적 박탈감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의 전체적 기여뿐만 아니라 각 요인의 기여까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대적 박탈감을 요인분석하여,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감정, 행동의도, 인지의 세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정체성관리 전략을 요인분석하여 집단행동, 비교차원 변경, 상위범주화의 요인을 얻었다. 이를 Tajfel(Tajfel, 1978, 93~94 쪽: Ellemers, 1993에서 재인용)의 주장에 따라 나누어 보면, 상위범주화와 비교차원변경 요인의 사회적 창조 전략과 사회적 경쟁 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Blanz 등(1998)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 전략이 행동 전략에 해당한다면, 상위범주화와 비교차원 변경 전략은 인지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llemers(1993)에 따르면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고 비합법적이면 집단간 갈등이 커지고 집단경쟁전략 사용이 커지리라고 예상했는데, 평균 점수로 살펴볼 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신들의 상

대적인 지위가 비합법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집단 경쟁 전략 사용도 모두 척도의 중간 값보다 높았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Ellermes(1993)의 주장과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구조 요인들,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집단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현재 지위관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상위범주화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았지만, 비교차원변경은 선행변인들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상위범주화, 비교차원변경, 집단행동의 세 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이는 Mummendey 등(1999)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박탈감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에도 각 전략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를 여성이기보다 대한민국 국민 혹은 한 인간 등으로 상위범주화하는 전략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고, 그 지위에 대한 합법성이 낮고, 안정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차원변경은 성별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여성들이 남성과 지위를 비교할 때 성실성, 창의성 등의 새로운 차원을 이용해 남성과 비교하는 전략은 사회구조 요인과 상관이 없었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고, 집단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의 지위 위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성친구를 격려하고, 여성의 입장을 대신해 이야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전략은 여성의 지위

가 남성보다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현재 지위관계의 합법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별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안정성과 관련하여 Mummendey 등(1996)의 연구에서는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면 개인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집단전략이 불필요하리라고 보았지만, Ellermes(Ellermes, 1993)는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더라도 지위관계가 비합법적일 때 집단간 갈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았는데,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할수록 상위범주화 전략, 집단행동 전략이 증가하는 점은 Ellermes(Ellermes, 1993)의 주장과 일관되고, 비교차원변경 전략이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점은 Mummendey 등(1996)의 주장과 일관된다. 결론적으로 부적 정체성 관리 전략에 따라 선행변인들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별사회정체성의 세 요인을 나누어 상관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자존심( $r=.03$ , n.s.)은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몰입( $r=-.07$ ,  $p<.10$ )과 집단범주화( $r=-.07$ ,  $p<.10$ )에서는 약한 정적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는 약하지만 관계의 방향성이 비일관된 결과로 Ellermes(1993)의 주장과 같이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합법성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별로, 지위, 합법성, 안정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동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집단범주화에는 지위만 약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beta=.078$ ,  $p<.10$ ), 집단몰입에는 합법성( $\beta=-.102$ ,  $p<.05$ )

과 안정성( $\beta = -.220, p < .001$ )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집단자긍심에는 안정성이 부적으로( $\beta = -.106, p < .05$ )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합법성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합법성과 집단몰입의 관계에서 김금미와 한영석(2002), 김금미 등(2003)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며, 다시 한 번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복잡한 구조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집단행동 전략을 설명하는데 상대적박탈감이 추가되어 16.1%의 증분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의도요인과 집단행동의 내용적 유사성으로 인해 설명력이 더 높아졌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사회구조 요인과 성별사회정체성 및 상대적 박탈감 세 요인을 동시에 넣고 집단행동을 예언변인으로 동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

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서 전체 설명변인들의 설명량은 집단행동(22.4%), 비교차원변경(18.5%), 상위범주화(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의 요인 내에서 살펴볼 때, 집단행동은 감정박탈이, 비교차원변경은 인지박탈이, 상위범주화는 행동의도 박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명강도를 보였다. 특히 집단행동을 설명하는데 감정박탈의 설명 강도가 가장 커서 집단행동과 행동의도 박탈의 행동 관련 문항 내용으로 인한 설명량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shbein과 Ajzen(1975)도 상황의 영향에 따라 행동의도가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모형에서 두 가지 변인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행동의도 박탈과 행동전략은 시점 상 행동 전과 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동적인 요소가 일관되어 행동의도박탈감이 전략 사용을 더 설명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표 9.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한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영향(동시회귀 분석 결과)

구분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상위범주화( $\beta$ )	비교차원변경( $\beta$ )	집단행동( $\beta$ )
지위	.012	.078 <sup>†</sup>	.036
합법성	-.197 <sup>***</sup>	.068	.012
안정성	-.062	.087 <sup>†</sup>	-.054
사회정체성	.038	.257 <sup>**</sup>	.036
인지박탈	.131 <sup>**</sup>	<b>.250<sup>**</sup></b>	.221 <sup>***</sup>
감정박탈	.026	.019	<b>.267<sup>***</sup></b>
행동의도박탈	<b>.146<sup>***</sup></b>	.157 <sup>**</sup>	.125 <sup>**</sup>
$R^2$	.150 <sup>***</sup>	.185 <sup>***</sup>	.224 <sup>***</sup>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한 상위범주화와 비교차원 변경의 인지적 전략은 인지박탈과 행동의도박탈의 설명 강도만 유의했고, 감정박탈은 유의하지 않아서 행동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박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낮을 때 상위범주화, 비교차원, 집단행동 전략 가운데 집단 행동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성별관계가 합법적이지 않고 불안정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집단행동전략을 사용하리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집단행동전략 사용을 높이려면 성별관계가 합법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사회정체성 추구 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별 사회정체성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별사회정체성의 복잡한 구조 때문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 추구 전략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합법성이 낮을수록 집단상대적 박탈감의 하위 요인들이 모두 높았으나, 안정성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성이 높을수록 행동의도 박탈만이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지위관계에 관하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인지적 혹은 감정적 박탈은 높아지고, 행동 실행과 관련한 박탈감은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의 집단 행동전략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지위관계의 불안정성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음을 재차 시사한다.

넷째, 집단행동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집단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감정박탈의 설명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집단행동전략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 가지 집단상대적 박탈감 요인 가운데 감정 박탈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양성평등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위, 합법성, 안정성, 성별 사회정체성에 이어 집단상대적 박탈감 개념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선행 사회구조 요인 가운데 합법성과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부적정체성 관리 전략, 특히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현재 지위에 불만족하더라도 사회구조 요인들과 성별사회정체성 및 상대적 박탈감의 요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지역이 포괄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18~21세가 312명으로 전체의 53%였고, 서울 지역 거주자가 341명으로 55.9%였다. 따라서 서울지역 여자 청소년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 관리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 요인에 더해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추가설명량이 크지 않았다. 비교차원변경전략에서만 설명량이 증가하였고, 사회정체성의 추가 설명량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 박탈감의 설명량이 더 컸다. 또한 집단행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추가 설명량은 16.1%였으나 다른 전략에 대해서는 설명량이 비교적 작았다. 성별사회정체성의 영향이 약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의 복잡한 구조에서 기인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넘어서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먼저 상대적 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모형을 검증하고 교차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상대적 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선행 사회구조 요인들의 개념상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실현 가능성은 자신이 대상을 소유하는 일이 과거에 실현 가능 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 실현 가능성은 미래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련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집단의 상대적 지위에 관련하여 안정성과 침투가능성 변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간 지위관계에서 현재 지위는 결과의 사회 비교 혹은 현재 준거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바라던 대상을 자신이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에 해당하는 자격부여와, 그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해당하는 자기책임은 의미상으로 볼 때 합법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ajfel 등의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합법성의 개념과 Crosby등이 주장하는 정당성이 개념상 일관되는 점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지위가 7점 척도에서 1.61( $SD=0.72$ )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자신들의 지위가 매우 낮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요인은 5.79, 집단자존심요인은 4.26, 집단범주화 요인의 평균은 4.07이었고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4.71로 척도의 중간보다 컸다. 따라서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상대적 지위가 낮을 때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닌다고 가정하지만, 본 연

구에서 여성의 '부적' 성별사회정체성은, 대비되는 단일 성별인 남성에게 비해 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추후 연구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먼저 성별과 같은 '상대적인' 부적 정체성과 달리 '절대적으로' 부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닌 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경쟁전략은 성별사회정체성 관리 전략과 달리 어떠한 현상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과, 여성의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적이지는 않은, 즉 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내면에는 어떠한 기제가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추후 연구에서 탐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 요인과 성별사회정체성의 설명력이 비교적 적었는데, 그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성별 사회정체성의 복잡한 구조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추정될 수 있다. 한 예로, 앞서 제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여성 응답자의 연령 범위가 17세~58세까지 다양하고 기혼이 39.7%였다. 연령대를 비롯하여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평균 연령이 23.16세( $SD=6.59$ )이고, 서울 경기 지역이 69.5%였다. 따라서 다수의 응답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자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통념상 인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회 상황에서 성차별을 겪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별사회정체성이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결혼 후, 혹은 취업 현장에서 여성이 비교적 낮은 지위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구조 요인들이 영향을 덜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른 사회구조 요인의 상이한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금미 ·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금미 · 한덕웅 (2002). 남녀집단의 지위, 성별 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88-293.
- 김금미 · 한덕웅 · 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 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금미 ·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박근석 · 한덕웅 (2002). 영호남인의 상대박탈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01-402.
- 한덕웅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 (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한덕웅 (2002). *집단 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서울.
- 한덕웅 (2003).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한 소수집단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연구의 전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97-398.
- Abeles, R. P. (1976). Relative deprivation, rising expectations and black militancy.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19-137.
- Bernstein, M., & Crosby, F. (1980). An empirical examin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442-456.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 (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697-729.
- Cameron, R. E., & Lalonde, R. N. (2001). Social identification and gender-related ideology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9-77.
- Crosby, F., Muhrer, P., & Loewenstein, G. (1986). Relative deprivation and explanation: Models and concepts. In J. M. Olson, C. P. Herman & M. P. Zanna(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 (vol. 4)*, pp.17-3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27-57). Chichester: Wiley.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New York: Wiley.
- Folger, R. (1986). A referent cognition theory of

- relative deprivation. In J. M. Olson, C. P. Herman & M. P. Zanna(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 (vol. 4, pp.33-5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olger, R. (1987). Reformulating the pre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s model. In J. C. Masters & W. P. Smith(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pp.183-2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Lalonde, R. N., & Silverman, R. A. (1994). Behavioral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78-85.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 (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 (pp.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Rey, C., & Raju, P. (1996). Group relative deprivation: Cognitive versus affective components and protest orientation among indian South Africa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5), 579-588.
- Sachdev, I., & Bourhis, R. Y. (1987). Status differentials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Vanneman, R. D. & Pettigrew, T. F. (1972). Race and relative deprivation in the urban United States. *Race, 13*, 461-486.
- 1 차원고접수 : 2008. 10. 13.  
심사통과접수 : 2008. 11. 16.  
최종원고접수 : 2008. 12. 7.

## **Gender Social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and Collective Action of Korean Women**

**Keum-mi Kim**

Sungkyunkwan University

**Hahn, Young-seok**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This study assessed the ability of the theory of social identity and relative deprivation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of wo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group relative deprivation and collective action. A sample of Korean women(N=637) was surveyed with questionnaire constructed to measure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of wo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dentity management strategy. The Results showed the addition of relative deprivation led to the significant increments(higher level recategorization 2.8%, change of comparison dimension 6.3%, collective action 16.1%) in amount of explained variance in social identity management strategy. This result shows usability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group relative deprivation in male-female inter-group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relative deprivation theory, social identity management strategy, status, legitimacy, stability, gender equality*